

# 아태 마스터스 참가자 모집 협력

대회 조직위, 몽골 스포츠마스터스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내달 12일까지 참가자 접수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는 15일 몽골 스포츠마스터스위원회와 대회 홍보 및 참가자 모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몽골 스포츠마스터스위원회가 아태조직위원회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강오 아태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몽골마스터스위원회 나람비토르 회장, 한국관광공사 오충섭 지사장, 전라북도 관광재단 김현분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이강오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나람비토르 몽골 스포츠마스터스위원회 회장의 인사말, 대회 홍보영상 상영 및 대회 소개 브리핑,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 홍보 활동 협조 및 대회 참가자 모집 협력에 대한 사항으로, 몽골 스포츠마스터스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 울란비토르지사서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 참가자들의 확대가 기대되



몽골마스터스위원회 나람비토르 회장 일행이 15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를 찾아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 및 참가자 모집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며,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울란비토르지사와 몽골 스포츠 마스터스위원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몽골

마스터스대회에는 생활체육 국제 종합대회로, 참가자 접수기간은 3월 12일까지이다

## '배구여제' 김연경 함께한

튀르키예 강진 모금 5억 모어

배구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에 돕기에 팔을 걷고 나서자 팬들도 기꺼이 동참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5일 "김연경 선수와 함께 진행한 튀르키예·시리아 긴급 모금 캠페인으로 5억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지난 9일 1,000만원을 기부하며 팬들과 함께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24시간 만에 1차 목표 모금액인 2억 원을 달성하는 등 많은 참여가 이뤄진 이번 모금은 일주일만 채 지나기 전에 5억원이 쌓이게 됐다. 특히 캠페인을 알리는 게시물에 김연경의 해외 팬들이 감사 댓글을 남기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카카오프렌즈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진행됐다. 모금함은 내달 9일까지 운영된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성금을 튀르키예·시리아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뉴시스

## 14년 만에 4강 향해... WBC 대표팀, 애리조나 캠프 소집

28일까지 국내 팀들과 5차례 연습경기 후 귀국길 올라

'메이저리거' 김하성·토미 에드먼은 내달 합류키로

내달 2~3일 고척서 마지막 점검 뒤 4일 일본 오사카로

14년 만에 4강 진출 목표 아래 태극전사들이 모였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이 1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본격적인 출항을 일렷다.

각자 소속팀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며 몸을 만들던 선수들은 대표팀 훈련을 위해 애리조나에 도착했다.

이날 애리조나 캠프에 소집된 선수는 최종 엔트리 30명 중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을 제외한 28명이다. 메이저리거인 김하성과 에드먼은 시범경기를 치르다 3월 초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대회가 한 달 여도 남지 않은 만큼 대표팀은 실전 경기 위주로 훈련을 진행한다.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17일 곧바로 NC 다이노스와 첫 연습경기를 갖는다. 이어 20일 KIA 타이거즈, 23·25일 KT 위즈, 27일 LG 트윈스와 연습경기가 예정돼 있다.

선수들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조율하면서 동료들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 이강철 감독과 코칭스태프도 바쁘다. 선수들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대회 구상을 해야 한다.

대표팀은 28일까지 애리조나 훈련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3월 1일 새벽 한국에 도착하고도 숨 돌릴 틈 없는 일정 이어진다.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마지막 점검을 가진 뒤 WBC 공식 소집일인 4일에는 일본 오사카로 떠난다. 6일과 7

일에는 각각 일본 오릭스 버펄로스, 7일 한신 타이거스와 마지막 모의고사가 계획돼 있다.

8일 결전자인 일본 도쿄도쿄로 이동한 대표팀은 9일 호주와 첫 경기로 WBC 서막을 올린다.

한국은 2013, 2017년 WBC에서 연거푸 1라운드 탈락 수모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6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2009년 대회 이후 14년 만에 4강 진출을 정조준하고 있다.

첫 상대인 호주에 이어 10일 일본, 12일 체코, 13일 중국전이 예정돼 있는 한국은 1라운드에서 조 2위에 오르려면 8강에 나아갈 수 있다. 8강전에서 승리하면 미국 플로리다로 넘어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된다.

이강철 감독은 지난달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일단 목표는 1라운드를 통과해 8강에 가는 것"이라면서 "4강전이 열리는 미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전북도가 제작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콘트 영상.

## 2023 아태 마스터스콘트 영상 공개

### '같이 · 함께 참가하자'

짧은 분량... 표현방식 취향 맞춰 제작도, SNS 통해 쿼즈 · 공유 이벤트 진행

전북도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참가자 모집을 위해 콘트 형식의 영상을 제작했다.

도는 대회 참가자 모집을 위해 최신 경향에 맞춰 재미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의 영상을 만들어, 15일부터 전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하는 짧은 층을 겨냥해 짧은 감각적인 내용과 표현방식을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영상은 '사랑, 참 어렵다. 그래도 사랑은 스포츠(도전)로 시작된다'를 주제로, 첫눈에 반한 여성에게 거절당해 좌절을 겪던 남성이 운동을 통해 멋진 모습으로 거

듭나 사랑도 이룬다는 내용을 유쾌하게 담았다.

또한 전북도는 홍보영상 공개에 맞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쿼즈 및 영상공유 이벤트도 진행한다. 응모자를 추첨해 소정의 경품도 지급한다.

나혜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 은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각급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경기에 참가해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 대회이므로 많은 분의 참가를 부탁드립니다"며, "참가자가 대회 제반 비용(항공료, 등 록비, 숙박비 등)을 부담해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축제, 관광에 참여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관광 산업에도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김제시, 도민체전 기본계획 실무부서 회의

김제시는 지난 14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기본계획 실무부서 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김광수 부시장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행정지원국장 및 각 실과소관 주무팀장과 읍면동 부읍면장, 사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실무부서에 전달함으로써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북도민체육대회의 현안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실무부서별 업무 협조 사항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인 도민체전 기

본계획을 논의하고 전 부서가 김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성공 체전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60회 전북도민체전은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김제시민운동장 등 김제시 일원에서 14개 시군 선수단 1만여명이 총 39개 종목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광수 부시장은 "제60회 전북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공무원의 관심과 대회 준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기자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